

어린이 책꽂이

달콤하고 살벌한 음식의 역사= 옥스포드출판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펴낸 세계사 시리즈로 음식, 패션, 의화, 놀이 등 각 테마별로 인물의 생활상을 다뤘다. 로마시대의 사치스런 음식문화에서부터 개나 고양이를 먹는 아시아 사람들의 음식문화까지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도시탐정단-런던의 협박편지= 세계 유명도시를 배경으로 '도시탐정단'을 결성한 어린이 주인공들이 추리와 모험을 통해 범인을 잡는 이야기. 생생한 현장그림과 각 도시의 명소까지 둘러볼 수 있다.

주사기가 온다=주사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감쪽하고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다. B형간염 예방주사를 맞는 날, 주인공 도미니크는 주사를 피하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난 원래 공부 못해=시골학교에 온 초보 여교사와 아이들의 갈등을 통해 '공부란 과연 어떤 것인지' 묻는다. 개성 넘치는 두 아이와 교사가 펼치는 팽팽한 신경전이 흥미진진하다.

교과서 속 구석구석 우리 문화재=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라, 제주 등 각 지역의 문화재를 직접 여행하듯 살펴볼 수 있다.

대중법률경매(주) T.062)227-6666 011-646-2226

Table with 5 columns: 지역, 소재지, 대지면적, 총, 감평가, 회계가. Includes sections for '근린상가(상가건물)', '공장·창고', '다구(주택)', '주거', '근린주택(주택부)', '숙박시설', '주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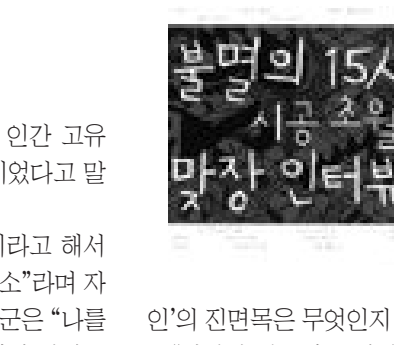


역사속 인물들의 그럴듯한 '자기 변명'

불멸의 15인 시공 초월 맞장 인터뷰 김종현 외 지음

역사속의 인물들을 현실로 이끌어내 이들의 진심을 담은 유쾌 발랄한 인터뷰집 '불멸의 15인 시공 초월 맞장 인터뷰'가 나왔다. 불문학자 김종현 등 내러티브는 각계 전문가들은 세간의 눈으로, 심부름 덧붙여 유쾌하게 어설플 시도에도 정색하며, 불멸의 15인과 짝꿍하게 마주 앉았다.

졸 때리면 어때?"라며 "자신은 결국 인간 교유의 '행복 추구권'에 관해 말했을 뿐"이었다고 말한다. 폭군으로 알려진 광해군은 "군왕이라고 해서 풍류를 즐기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 있소"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또 흥선대원군은 "나를 8천명이나 되는 천주교 신자들을 살해한 잔인무도한 폭군, 권력의 화신으로 평가하는 데- 백성들, 보수적인 유학자, 개화파까지 모든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이 나"라며 재평가를 요구한다.



150센티 밖에 되지 않는 '작고(小) 평범한(平) 한 사나이'가 21세기에 도전하며 중국의 방황자가 되고 있는 이 '작은 거인'의 진면목은 무엇인지 되새겨 보고 있다.

"혁명이 성공해 쿠바의 2인자가 됐는데 왜 볼리비아 밀림으로 떠났는가"라고 묻는 시인 이산하에게 혁명이 체 게바라는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 혁명가로 태어났다. 그래서 억압받는 제3세계 혁명을 위해 떠났고 30살에 죽었다. 내 꿈이 내 자식들만 추구할 수 있는 거였는데..."라며 웃는다.

투인비의 말을 빌리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다. 가슴이긴 하지만 과거에서 불려온 인물과의 유쾌하고 솔직한 대담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게 된다. (서해문집·1만1천9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 현대사에 자취 남긴 인물 조명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 역사비평 편집위

박정희 VS 김일성, 영삼성 VS 한살아, 최현배 VS 김두봉... 1947년 남과 북에 두 개의 국가가 수립되면서 60년 동안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계간지 '역사 비평' 편집위원회는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을 정치, 언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현대사에 자취를 남긴 인물들을 통해 남북 현대사를 들여다본 책이다. 책은 그밖에 영화배우 윤봉춘과 문예봉, 송문 조택원과 최승희, 지역성과 세계성을 모색한 과학자 이태규와 리승기, 남북을 대표하는 사관인 실증 사학과 주체사학의 근간을 마련한 이병도와 김석영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호모부커스 이권우 지음

'출판자날' 편집장 출신으로 이미 '어느 게으름뱅이의 책 읽기', '각주와 이크의 책 읽기' 등 '책'에 관한 책'을 여러 권 펴낸 바 있는 이권우씨가 '책 읽기의 달인-호모부커스'를 펴냈다. 저자는 '책 읽는 도중에 메모하지 말라' 등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의 저자인 다치바나 식 독서법을 비롯해, '깊이 읽고 겹쳐 읽어라', '읽고 토론하고 써라' 등 효율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또 조선시대 책벌레 이덕무 등을 소개하고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이 책은 그린비 출판사의 인문학 프로젝트인 '달인' 시리즈로 지금까지 '놀이의 달인-호모 루테스', '공부의 달인-호모코푸스' 등이 출간된 바 있다. (그린비·1만1천9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고골리 '외투'

칠년 간 근무했던 직장은 고층건물로 가득한 서울 한복판에 있었다. 지하철을 내려면 역사를 빠져나가기 위해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려 일제히 계단을 올라가는 사무원들의 뒷모습을 보면 쓸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특히 겨울철 아침이면 그들이 모두 거대한 장례식장으로 묵묵히 걸어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 검은 외투를 입은 사무원들은 마치 누군가의 죽음을 예도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자동적으로 발을 돌려 계단을 올라간다. 그 검은 사무원 무리들을 보면 왜 살아 있는 시체를 뜻하는 짐승을 현대인에 빗대어 표현하는 지 알 것만 같다.

나 역시 도심 지역의 수많은 짐승 중 하나가 되어 서서히 계단을 올라가노라면 고골리의 '외투'에 등장하는 하급 관료 아까가께예비치가 떠오른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형적인 직업적 특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가 아까예비치가 꼭 그런 사람이다. '언제 어떤 시기에 관장에 들어왔는지, 또 그를 관직에 앉힌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도 없는, 흡사

'유령 같은 삶'의 인간들

유령과도 같이 사람들 눈에 좀처럼 띄지 않는 아까가께는 '재복을 입고 이마가 벗겨진 모습을 한 채 9급 관료가 되기 위해 이미 완전한 준비를 하고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다. 동료의 농담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정을 갖고 자기에게 주어진 단순한 서류 정서 업무에 몰두하고, 일을 하다가 특별히 좋아하는 글자를 대하면

'기빠서 미소를 짓고 워크를 하면서 입으로 글자들을 불러봐 정도로 자동화된 인물'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그는 관료나 조직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계급적 특성을 갖춘 전형적인 인물이다. 전철이 뚫리는 것은 사회적이거나 계급적인 특성이 개성을 잠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사회나 계급의 시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선택과 사고의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묘한 안도감을 받기도 한다. 그 때문에 거대한 조직에 몸담은 관료나 사무원들은 쉽사리 사회의 전향과 결탁하고 자신도 모르는 새에 서서히 유령같은 존재가 돼 인간 세상에 스며든다.

하급 관료 아까가께는 단지 외투 한 벌 때문에 시를시를 읽다가 죽어 버리지만, 죽음 이후 '유령'이 되면서 비로소 개인의 욕망을 갖기 시작한다. 그는 죽어 유령이 됨으로써 하급 관료의 정체성과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정서 업무에서 벗어나 '외투를 갖고 싶다'는 욕망의 자발적인 주체가 되고 적극적인 욕망의 실현자가 된다.

나보코프는 이 작품을 '아까가께라는 인물이 원래의 신분이었던 유령으로 회귀해 가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라 했다. 우연히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유령이 소설의 끝에서 가서 인간의 육체에서 벗어나 본래의 유령 세계로 돌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나는 아까가께에게서 인간의 삶과 결별하고 유령의 삶을 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성을 획득하는 역할을 본다. 분명 어께가 조금 굵은 외투에는 비듬이 떨어져 있을 것만 같은 아까가께를 떠올리면 문득 나 자신에게 묻고 싶어진다. 나는 사람의 삶을 사는 유령인지, 유령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편혜영<소설가>)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 (광주 우산동 1605-3 허남시영) 2단지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대중법률경매(주) T.062)227-6666 011-646-2226